

연사 3

일본

# 훈민정음 = 한글의 탄생과 발전을 언어의 원리론에서 보다

노마 히데키 野間秀樹

언어학자, 메이지가쿠인대학(明治學院大學)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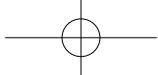
## 들어가기

본고의 목적은 훈민정음 = 한글의 탄생과 발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언어존재론>(Sprachontologie : 독, ontology of language)이라 부를 수 있는 언어의 원리론에서 비춰 보는 데에 있다. 특히 기존의 언어학의 테두리를 벗어나 <말해진 언어>(spoken language)와 <쓰여진 언어>(written language)를 각각 위상(位相)이 다른 실현체로서 정식(正視)하는 시좌(視座)를 획득함으로써 정음=한글의 의미를 가장 깊은 곳에서 비춰 볼 수 있음을 논의한다. <한자나 한글이나>와 같은 단순한 양자택일적인 도식으로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하고 깊은 지(知) = 앎의 영위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 1.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는 위상이 다른 실현체이다

오늘날의 현대 언어학의 기초를 만든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학은 langue(언어 : 불)와 écriture(쓰여진 것 : 불)의 구별을 논의했다. 그런데 동시에 소쉬르 언어학은 écriture(쓰여진 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langue(언어 : 불)를 포기하는 것이라 하여 <쓰여진 말>을 <말해진 말>의 <영상>으로 보았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사진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Saussure(1916;1972:44-54). 그 주장에서 <쓰여진 언어>의 위치는 아무래도 이차적인 것,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경향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음성으로 실현되는 <말해진 언어>와 문자로 실현되는 <쓰여진 언어>를 비춰 볼 때 후자를 전자의 단순한 베낌이나 영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아빠, 이게 뭐예요? 손수건인가? 버려도 돼요?”라는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거기 있었구나. 아, 안돼, 안돼, 버리지 마. 그거 아빠의 소중한…….”이라고 아버지가 말한다. 그 말을 받아 딸이 말을 잇는다. “아빠의 소중한 추억의 손수건?” 언어음에 의한 두 사람의 이러한 대화와 문자로 쓰여진 대화와의 관계를 보아도 <쓰여진 언어>는 <말해진 언어>의 단순한 베낌이나 영상으로 볼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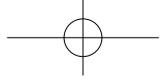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먼저 <말해진 언어>에 있었던 <음>이 <쓰여진 언어>에서는 누락된다. 목소리로 만들어진 [아빠 이게 모에어]와 같은 언어음은 <말해진 언어>를 구성하는 신체 그 자체이지만 <쓰여진 언어>에 있어서는 문자라는 시각적인 형태로 조형되어 있을 뿐, 음이라는 물리적인 신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음소>가 베껴졌다고는 할 수 있어도 음의 고저, 장단, 강약, 속도와 같은, 언어학에서 프로소디(prosody)라고 부르는 속성도 문자에서는 거의 베껴지지 않고 있다. 설령 그것이 <의미>의 조형에 불가결의 요소였다 하더라도 위의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

또한 <말해진 언어>에서는 딸과 아버지의 말이 물리적으로 겹쳐져서 실현되어 있어도 문자로 조형된 <쓰여진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의 그러한 <겹침>은 사라진다. <말해진 언어>에는 화자의 수만큼 말의 트랙(track) 내지는 궤도, 즉 발화대(發話帶)가 존재하여 그 발화대들이 자유롭게 온(ON)과 오프(OFF)를 되풀이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쓰여진 언어>의 트랙, 발화대는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밖에 없다. 사람이 한 번에 복수의 발화대를 읽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말해진 언어>는 화자의 수만큼 트랙, 발화대를 가지는 멀티 트랙으로 실현되는 반면 <쓰여진 언어>는 항상 싱글 트랙이다. 단 일본어의 <쓰여진 언어>에서 사용되는 한자 등에 다는 <후리가나>(hurigana)는 싱글 트랙인 <쓰여진 언어>에서 미세한 일부를 더블 트랙, 경우에 따라서는 트리플 트랙으로 만드는 장치이다.

또한 <말해진 언어>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딸과 아버지의 대화가 들리고 있는 <지금, 이곳> 이외에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쓰여짐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존재로 환생, 다시 태어난다. <지금, 이곳>에서밖에 들을 수 없으며 듣는 즉시 사라져 가는 <말해진 언어>는 쓰여짐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쓰는 이가 죽은 뒤에도 그 실체를 남겨 쓰는 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도 나타날 수 있다. <쓰여진 언어>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도 더 나아가 딸이 죽은 뒤에도 그 딸의 자식들조차 <쓰여진 언어>가 남아 있으면 읽을 수 있다. 웅(W·J. 옹그 1991:171)이나 데리다(데리다 2001:20-24)는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쓰여진 언어>에서 쓰는 이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쓰여진 언어>의 등장으로 언어가 실현되는 장(場), 존재하는 터 - 언어장(言語場 : linguistic field) - 의 양상이 사람의 삶과 죽음을 둘러싸면서까지 결정적으로 변용된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말해진 언어> 역시 녹음, 녹화, 저장, 재생이라는 테크놀로지에 의해 그 신체가 의사적(疑似的)으로 복제되어 어디까지나 근사적(近似的)이기는 하나 <지금,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쓰여진 언어>에 있어서는 일정한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건너뛰며 읽거나 앞에서 뒤로 되돌려 읽는 것도 읽는 이에게 가능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말해진 언어>에 있어서는 말을 [아-빠-아-게-모-에-어]라는 음의 계기 순서는 절대적인 것이다. 한번 실현된 소리는 [아-게-아-빠-모-에-어]와 같은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쓰여진 언어>에서는 이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된다. 읽는이에 따라서도 읽을 그때 그때에 따라서도 순서는 가변적이다. <쓰여진 언어>에서 사람은 때를 대각선 방향으로 읽어 나갈 수도 있고 때를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쓰여진 언어>에서는 음이 시간축을 따라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시간을 둘러싼 선조성(線索性, linéarité : 불)이라는 본질적인 성질이 파괴되어 완전히 새로운 시간의 성질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성질을 시간의 가소성(可塑性, plasticity of time or chrono-plasticity)이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말해진 언어>에서는 선조성이라는 언어의 존재양식을 규정하는 독자적인 시간의 척도, 시간의 좌표가 존재하는 데에 비해, <쓰여진 언어>에서는 그러한 좌표 자체를 잃게 되고 차원 공간 자체가 무화(無化)된다. 한편 <쓰여진 언어>는 시간의 가소성을 획득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시간적 성질, 완전히 새로운 좌표축, <말해진 언어>에는 존재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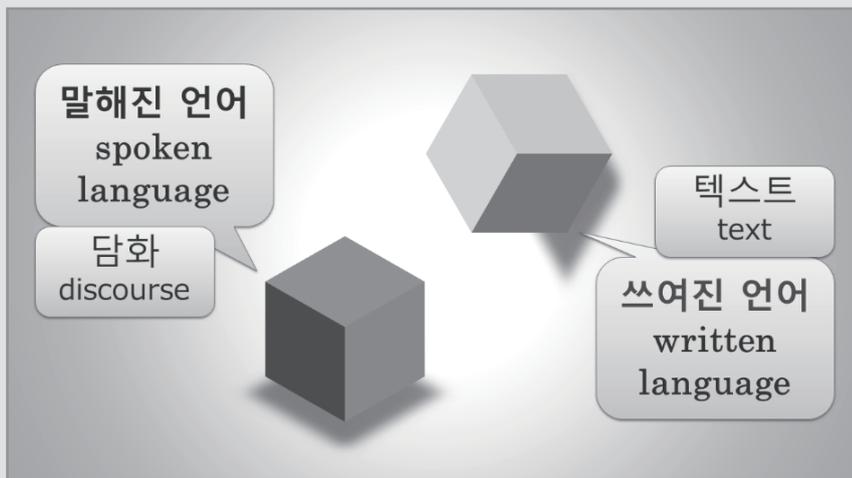


않았던 차원 공간을 획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 각각을 〈어떻게 존재하는가〉 혹은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존재론적인 시좌(視座)에서 보면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에는 서로 비슷하게 갖추어져 있는 언어적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있고 한편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다. 즉 〈말해진 언어〉로부터 〈쓰여진 언어〉로라는 발생론적인 순서는 엄연히 불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자에는 전자에 있었던 본질적인 것이 크게 빠지는 것과 동시에 전자에 없었던, 역시 본질적인 것이 새로 생겨 나는 것이다.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는 둘 다 언어의 서로 다른 존재양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들은 단순한 베낌이나 영상이라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치 위상적으로(topologically) 다른 실현체로서의 존재양식을 보이는 것이다. 언어나 문자를 생각하려면 이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의 올바른 위상을 확립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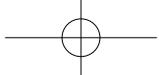
[그림 1]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는 언어의 위상이 서로 다른 존재양식이다



## 2.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를 둘러싼 15세기 조선어의 이중언어 상태와 지 = 앎

그러면 이러한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라는 언어의 존재양식에 비춰 볼 때, 한글이 창제된 15세기 조선왕조의 시대의 언어의 양상은 어떠하였을까?

〈말해진 언어〉는 기본적으로 조선어였다. 사회적인 계급 등 사회 집단에 따른 언어차는 있어도 계급, 사회 집단의 여하를 막론하고 〈말해진 언어〉가 조선어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쓰여진 언어〉로서의 조선어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쓰여진 언어〉로서의 조선어는 조선어의 고유명사를 한자로 표기하거나 한문에 붙이는 구결을 한자로 표기하는 등, 조선어의 극히 일부가 한자로 표기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한자로 표기된 조선어는 그 비중이 크더라도 단어의 레벨을 벗어나지 않는다. 삼국시대에 시도되었던, 한자를 빌려 문장을 만들고 조선어의 전체를 표기하려고 하는 소위 차자 표기법(借字表記法)의 전통은 이미 잊혀진 지가 오래였다.



그러면 <쓰여진 언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가? 존재하였다. 그것도 압도적인 양과 질을 가지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것은 한자로 쓰여진 한문, 즉 고전중국어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동시대의 <말해진 언어>로서의 중국어였던 게 아니라 중국어권에서도 이미 고전이 되어 있었던 오래된 중국어였다는 점이다. 즉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모어(native language)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인 학습에 의해 획득하는 학습언어로서의 <쓰여진 언어>이다. 이 점에서 동시대의 서구에 있어서의 라틴어적인 위치와 어느 정도는 근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시대 조선에서는 문자란 사실상 한자와 다를 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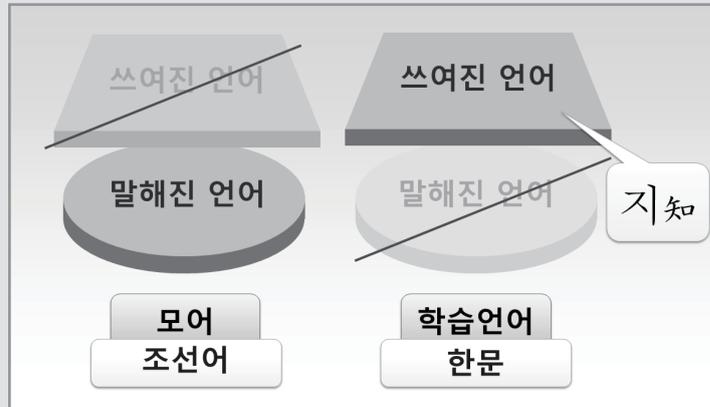
<쓰여진 언어>로서의 한문 = 고전 중국어는 조선왕조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군림하였다. 법은 그 전부가 한문이었고 과거(科擧)의 전부는 한문으로 실시되었고 바로 한문의 역량을 묻는 것이었다. 문학 역시 한문이었으며 삶의 이치와 부조리를 읊는 것도 미(美)를 찬양하는 것도 술에 낙루하는 것도 한문이었다. 사대부는 태어나는 즉시 한자로 된 이름이 지어졌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장대한 기록도 개인의 서간도 보잘것없는 비망록도 그 모두가 한문이었다. 왕에게 죽음을 하사받는 것도 죽은 후에 용서받는 것도 한문이 그 모든 것을 말하였다. 사대부는 한문에 살고 한문에 죽고 한문에 되살아났다. 사대부 = 지식인은 이 <쓰여진 언어>로서의 한문을 자기 자신의 말로서 썼다. 조선어권에서는 한문에 의해 방대한 <쓰여진 언어>가 조형되어 있었던 것이다.

15세기 조선어권의 지배계급은 <말해진 언어>는 모어인 조선어, <쓰여진 언어>는 학습언어인 한문 = 고전중국어라는 이중언어 상태 속에서 살고 있었다. 한문은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에 독점되어 있었다. 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계급은 <지금, 이곳>의 왕궁에 있으면서 <쓰여진 언어>로 의해 군마를 움직이지 않아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 지배를 관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知) = 앎을 전하여 교환하고 축적하며 거대하게 키워 나가는 영위는 이 <쓰여진 언어>인 한문 = 고전중국어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조선어권에 있어서의 지(知) = 앎은 학습언어인 한문 = 고전중국어라는 <쓰여진 언어>에 의해서만 형상화(形象化)되어 함께할 수 있었고 창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피지배계급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모어인 <말해진 언어>로서의 조선어뿐이었다. 문자 = 한자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각을, 삶을, <지금, 이곳> 이외의 자리에서 지(知) = 앎으로서 각인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사람들의 반란조차 사서(史書)에는 한자 몇 글자로 끝나 버린다. 피지배계급은 지(知)를 지로서 함께하여 연마시키는 방도를, <쓰여진 언어>를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知) = 앎과 언어라는 도식으로 비춰 볼 때 15세기 조선어권의 양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대부 =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쓰여진 언어>의 내실을 깊게 들여다 보면 더욱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사실이 부각된다. 조선어의 고유어로 말해지는 모든 것은 <쓰여진 언어>의 지(知) = 앎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현대철학 같으면 존재론의 근간을 이를 <있다>와 같은 말도, 인식론의 기초를 짚어질 <알다>라는 말도, 지(知) = 앎이 아니었다. <在>, <有>, <知>, <識>와 같은 형태로 적혀지는 것만이 지(知) = 앎을 구성한 것이다. 사실상 한자로 쓰고 한자음으로 읽는 대상만이 조선어의 지를 구성하는 전부였던 것이다. 지(知) = 앎의 이 절대적인 판도에서는 지배계급인 사대부 = 지식인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중원(中原)에서 멀리 떨어진 유라시아의 극점에 있으면서도 지의 기본적인 단위는 장성(長城)이 둘러싼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2] 15세기 조선어권의 이중언어상태와 지(知)=앎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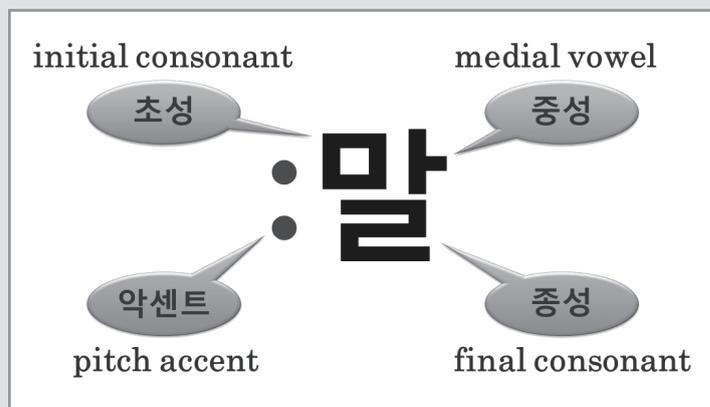
### 3. 훈민정음의 탄생과 혁명의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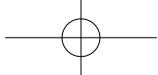
언어와 지(知)=앎을 둘러싼 15세기 조선어권의 이러한 현실의 한 가운데에서 훈민정음은 창제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음은 언어음을 문자로 만들었다. 문자를 구성하는 단위=자모는 20세기 언어학이 <음소>라 부르는 대상이었다. 자모를 조형하는 원리를 보면 음소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간 <변별적 소성> <변별적 자질>이라고 불리는 개념에까지 육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대다수의 훈민정음론이 놓치고 있었던 훈민정음의 <사분법>(四分法 ; tetrachotomy)에 대해 여기서 확인해 두기자 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대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존재론적인 시좌에서 보는 데에 있다. <음의 평면>과 <문자의 평면>을 엄밀하게 구별하여 그 양상을 보는 것은 불가결한 전제이다.

정음은 음의 평면에서 음절을, (1) 음절의 첫 자음=초성, (2) 음절의 핵을 이루는 모음=중성, (3) 음절말의 자음=종성, (4) 음의 고저(高低) 악센트, 라는 네 가지 요소로 해석(解析)하고 문자의 평면에서 그들 네 가지 요소에 각각 형태를 주어 그 형태들을 조합하여 문자를 만드는 구조였다.

[그림 3] 훈민정음은 음절을 4가지 요소로 분석, 종합하는 사분법(tetrachotomy)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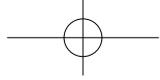
기존의 정음론은 (1) (2) (3) 세 가지 요소로 해석종합(解析綜合)되는 삼분법(三分法 ; trichotomy)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4) 또한 결코 놓쳐서는 안될 요소이다. 제4의 요소, 고저 즉 높낮이 악센트는 오늘날의 국어학에서는 보통 <성조>라 불리우며 그것을 형태화한 것이 <방점>(傍點)이다. 고저 악센트는 무점(無點), 일점(一點), 이점(二點)의 세 가지 방점으로 나타났다. 무점을 이용한 구조도 주목할 만하다. 단 성조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현대 중국어와 같은 성조가 아니라 음절의 고저에 의해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현대 한국어의 경상도방언이나 현대 일본어 도쿄방언과 같은 고저 악센트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의 고저는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음소와 마찬가지로 음의 평면에 있어서 의미의 구별에 관여하는 불가결한 요소였다. 그러한 불가결한 요소는 문자의 평면에서 방점으로 형상화되어 붙여지는데 물론 단순히 붙여진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방점 역시 정음을 구성하는 불가결한 일부였던 것이다. 오늘날 한글에 방점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고저 악센트가 음의 평면에 있어서 16세기 이후 붕괴된 것에 기인되는 것이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한글은 삼분법으로 보이지만 정음의 원리로서는 어디까지나 사분법이었던 것이다.

참고로 15세기 중국 음운학은 기본적으로 이분법(二分法 ; dichotomy)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지의 한자음을 기지의 두 가지 한자음으로 기술하는 <반절>(反切)이라는 시스템은 그 현실적인 반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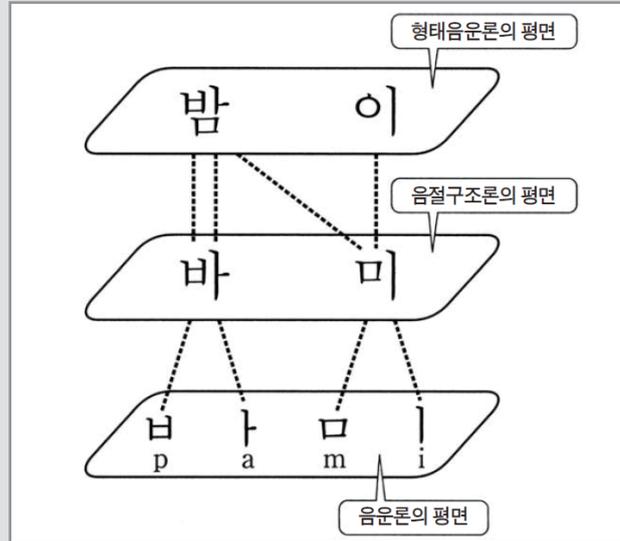
또 하나 정음 = 한글을 둘러싼 중요한 과제가 있었다. 그것은 음의 평면에 있어서 음과 음이 만날 때에 일어나는 한국어 언어음의 격심한 변용을 문자의 평면에서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과제이다. 조선어 = 한국어에서 음의 변용이 격심함은 주변의 중국어나 일본어와는 비교가 안된다. 음의 변용에 있어서는 러시아만큼 격심함을 보인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현대 한국어에 한해서 생각해 보자. 한국어의 음의 변용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입/+/이/가 /이비/가 되는 것과 같은, 음절구조의 변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용을 <중성의 초성화>(initialization of finals)라 부른다. 이것을 <연음>(連音)이나 <리에종>(liaison)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프랑스어의 <연음> <리에종>은 les amis /le-za-mi/와 같은 예를 가리킨다. les /le/가 amis /ami/와 결합되면 /lez/와 같이 없었던 음이 출현되는 것으로, 원래 있었던 중성이 다음 음절의 초성이 되는 /입/+/이/가 /이비/가 되는 것과 같은 한국어의 현상과는 다르다. 이것을 “발음되지 않았던 어말의 묵음(默音) s가 발음되는 현상”과 같이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디까지나 사실은 <음의 평면에서 그렇게 발음되는 것을 문자의 평면에서는 그렇게 쓴다>는 것이니까. “묵음”(默音)이라는 명칭은 문자의 평면에서 본 용어이니 음의 평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성의 초성화>에 대해서는 野間秀樹(2007:307-316)를 참조.

한국어의 중성의 초성화는 프랑스어 같으면 오히려 il /il/ + a /a/가 il a /i-la/로 발음되는 <양쇄느망>(enchaînement)이라 불리는 현상과 유사하다. 단 프랑스어의 양쇄느망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에 대해 한국어의 중성의 초성화는 단어간 뿐만 아니라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진다. 음의 평면에서의 이 중성의 초성화를 문자의 평면에서 해결하는 장치는 바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초성이 제로임을 나타내는 마커로서의 <ㅇ>이었다. 한글에서는 /입/+/이/ 라는 결합을, 문자의 평면에서는 기본적으로 ①(ㅇ)ㅣㅂ(ㅇ)ㅣ, ②이비, ③입이, 라는 세 가지 표기법이 있는 셈이다. 각각 ①음운론적인 평면, ②음절구조론적인 평면, ③형태음운론적인 평면에 기초를 두는 표기법이다.



[그림 4] 한글의 3층 구조 - 노마 히데키(201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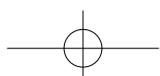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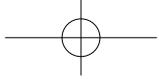
한국어에서의 종성의 초성화는 단순히 음절구조의 변용을 가져다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종성의 초성화가 일어날 때 여기에 더하여 음소교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이/가 /이비/가 된다고 하였으나 실은 음의 평면에 있어서 /입+/이/는 언제나 /이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입/이라고 발음하는 단어에는 /입+/이/가 /이비/가 되는 것 이외에 /이피/가 되는 것이 존재한다. 즉 단어에 따라서는 /ㅂ/이 /ㅍ/으로 음소의 교체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오늘날 형태음소론적 변용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의 형태음운론에 관해서는 野間秀樹(2007), 송철의(2008) 등을 참조.

종성의 초성화와 동시에 이러한 음소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문자의 평면에서 어떻게 형태로 나타내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자의 평면에서는 이것을 <입>과 <임>처럼 구별하여 씀으로써 해결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물음은 언어존재론적인 시좌에서 <음의 평면에서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문자의 평면에서 어떻게 형태화할 것인가>라는 형식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많은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듯이 “<임>은 <이피>라고 발음한다”는 방향으로만 가르치는 것은 한글에 담겨진, 깊은 지(知)=앎을 자칫하면 간과해 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발음한다>는 설명은 문자로서 표시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음의 현상을 보려고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원리에야말로 지(知)의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음에 세계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문자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러한 물음이 바로 훈민정음=한글의 지(知)=앎을 가장 깊은 곳에서 비춰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좌(視座)는 언어 교육의 현장에서도 교사와 학습자에게 확실히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좋아요>에 왜 종성자모 <ㅎ>이 쓰이는냐는 문제도 이러한 형태로 물음이 형성될 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 종성자모 <ㅎ>은 <좋고>/조코/와 같은, 음의 평면에서 일어나는 격음화=거센소리되기를, 문자의 평면에서는 격음화=거센소리되기를 일으키는 표지로서 종성자모 <ㅎ>을 씀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종성자모 <ㅎ>을, <좋습니다>/조쌌니다/와 같은 농음화=된소리되기도 일으킨다고 볼 필요는 없다. 모음어간이나 ㄹ어간이 아니라 자음어간의 용언에 결합되는 어미의 두음은 <남습니다>/남쌌니다/, <안고>/안꼬/와 같이, 종성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농음화=된소리되기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훈민정음=한글을 창제하고 발전시켜 온 한국어권의 언어 사상 자체가 이러한 로지컬하고=논리적이고 라디칼한=근본적인 지(知)=앎에 의해 지탱되어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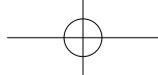
#### 4. 지적(知的) 혁명의 진격

훈민정음의 창제 자체가 강인한 지(知)=앎에 지탱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음과 지(知)의 양상을 볼 때 정음은 조선어권의 지에 결정적이고 거대한 변혁을 초래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어의 고유어로 말하는 모든 것이 <쓰여진 언어>의 지(知)=앎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의 최소 단위는 한자이며 한문이었다는, 지(知)=앎의 자장(磁場)의 기초를 정음은 그 근본에서 뒤엎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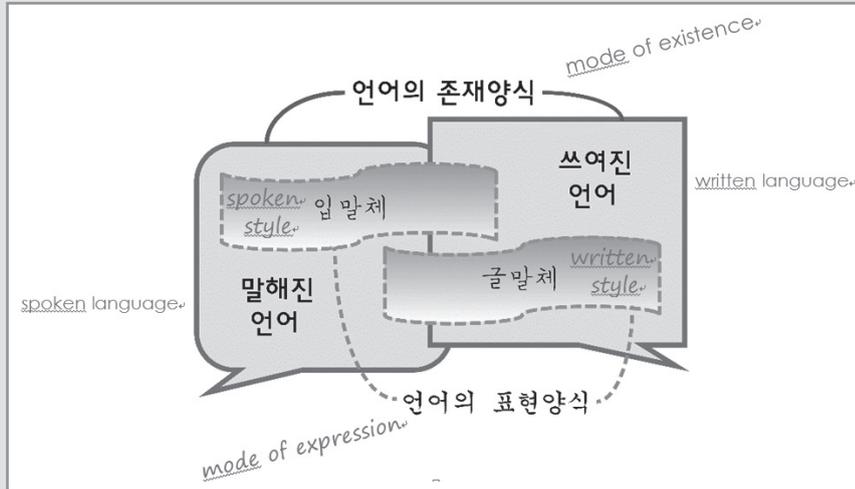
정음의 등장으로 조선어로 형상화되는 모든 것들은 지(知)=앎의 권역(圈域) 안으로 흘러들었다. <在>나 <有>라고 쓰여지지 않아도 오늘날 <있다>라고 쓰는 말처럼 고유의 말이 지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의성의태어도 그것이 정음으로 쓰여지는 한, 지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었다. 유학의 근간을 이루었던, <仁>이라는 한자=세포에 의해 지탱되었던 조선어권의 지(知)=앎은, “△, 1, ㄴ”이라는 음의 단위=분자(分子)로 해체되었다. 분자는 <신>과 같이 서로 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세포를 창출하였다. 이리하여 모어인 조선어의 모든 말이라는 말이 지(知)=앎을 이루는 실질적인 단위로서 조선어권의 대지에 등장한다. 모어가 지(知)=앎이 되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정음의 창제는 이러한 지적(知的) 혁명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문자가 만들어지고 지(知)=앎의 새로운 원리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혁명은 성취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존재론적인 시좌(視座)에서 언어와 문자를 비춰 보아야 한다. 문자는 쓰여지지 않으면 문자일 수 없고 문장(sentence)일 수 없으며 글=텍스트(text)일 수 없다. 문자는 <쓰여진 언어>의 물리적인 신체이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쓰여진 언어>가 아닌 것이다. 사람은 말하는 것처럼 쓸 수 없으며 쓰는 것처럼 말하지 못한다. 문자 체계가 완성된다고 하여 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기에는 말하자면 <목숨을 건 도약>(salto mortale : 이)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는 엄연히 위상이 다른 실현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문자화하는 것은 아니다. 문자로 쓰면서 사고하여 사고하면서 씌으로써 <쓰여진 언어>를 만들어 나간다. 거기에는 <쓰여진 언어>의 문체의 창출이라는 장대한 과제도 놓여 있다. 조선어의 표현양식으로서 입말체는 존재해도 글말체는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쓰여진 언어> 그 자체의 풍요로운 창출이,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음의 창제는 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 출발은 말 그대로 겨우 시작임에 불과했다.

현대 한국어에서 <말해진 언어>의 실태를 기술한 연구로서 서상규·구현정 공편(2002, 2005) 등의 선구적인 업적이 있으며 언어의 존재양식으로서의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 그리고 언어의 표현양식으로서의 <입말체>와 <글말체>를 명확히 구별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로서 金珍娥(2013), 김진아[金珍娥](forthcoming)가 중요하다. 거기서는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가 도대체 얼마나 다른가 그 경약할 만한 언어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자가 태어나도 <말해진 언어>를 그대로 베낄 수 없음을 최근의 이러한 <말해진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림 5] 언어의 존재양식과 언어의 표현양식을 명확히 구별해야 훈민정음=한글의 의의가 보인다



그런데 혁명의 출발에 임하여 세종을 비롯한 정음혁명파의 사람들은 당치 않게도 조선어를 주(主)로 하고 대중화(大中華)의 한문을 종(從)으로 하는 텍스트인 왕조의 송가 <용비어천가>를 쓰고 한자음까지 정음이 꿰뚫는 운서 <동국정운>을 엮었으며 <훈민정음 해례본>을 언해하였다. 팔목할 것은, 이러한 업적이 수 년만에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훈민정음 언해본>을 비롯한 방대한 <언해>는 한문에서 조선어의 <쓰여진 언어>를 창출해 내는 작업이었다. 요컨대 한문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선어로 쓰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정음의 창제는 혁명의 출발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문자 그대로 투철된 지(知)=앎에 의해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전략이 이론적으로 구상되고 실천적으로 제기된 경악할 만한 지(知)=앎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거대한 혁명의 수행은 정음 창제 이래 조선어권에 있어서 다양하고 오랜 <쓰여진 언어>의 실천에 의해 지탱되고 구축되어 왔다. 정음에 의한 조선어의 <쓰여진 언어>는 한자에 의한 한문의 <쓰여진 언어>와, 각자 <쓰여진 언어>로서 다른 영역에서 살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조선왕조시대의 많은 문헌들의 존재가 가르쳐 준다. 이 점에 관해서는 洪起文(1946;1988), 李基文(1961;1972), 小倉進平著·河野六郎增訂補注(1964), 安秉禧(1992), 李基文(1998), 姜信沆(2003), 송기중·이현희·정재영·장윤희·한재영·황문환(2003), 野間秀樹(2010), 노마 히데키(2011), 정주리·시정곤(2011), 김주원(2013)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정음은 결코 잠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쓰여진 것이다. 정음에 의한 <쓰여진 언어>의 실천, 그리고 근대 이후의 <한글>로서의 비약, 제국의 언어 일본어와의 투쟁. 이리하여 혁명의 걸음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미 족히 수백 년에 이른다. 혁명을 짊어진 것은 혹은 사상가이고 학자이고 혹은 기자였고 문인이었으며 혹은 투쟁에 앞장선 소녀였으며 혹은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혁명은 -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참고문헌

- 姜信沆(2003)“수정 증보 훈민정음연구”.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주원 (2013) “훈민정음 : 사진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 서울 : 민음사
- 김진아[金珍娥](forthcoming) “담화론과 문법론 :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추다”. 서상규 옮김
- 노마 히데키(2011) “한글의 탄생 - 〈문자〉라는 기적”. 김진아·김기연·박수진 옮김. 파주 : 돌베개
- 노마 히데키(2014) ‘지(知)와 한글에 부치는 서장(序章)’. 노마 히데키 역음. 김경원 옮김. “한국의 지(知)를 읽다”. 고양 : 위즈덤하우스
- 노마 히데키(2015) ‘인문언어학을 위하여 - 언어존재론이 묻는, 살아가기 위한 언어’.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석학과 함께 인문 정신을 논하다”. 서울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 서상규·구현정 공편(2002) “한국어 구어 연구 (1)”. 서울 : 한국문화사
- 서상규·구현정 공편(2005) “한국어 구어 연구 (2)”. 서울 : 한국문화사
- 송기중·이현희·정재영·장윤희·한재영·황문환(2003) “한국의 문자와 문자연구”. 집문당
- 송철의(2008)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 安秉禧(1992) “國語史 資料 研究”. 文學과知性社
- 安秉禧(2007) “訓民正音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 李基文(1961;1972) “國語史概說 (改訂版)”. 서울 : 太學社
- 李基文(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서울 : 太學社
- 정주리·시정곤(2011) “조선언문실록”. 서울 : 고즈윈
- 洪起文(1946;1988) “正音發達史”. “原本 朝鮮文法研究 正音發達史”.(影印 1988, 大提閣 所収)
- 小倉進平著, 河野一郎増訂補注(1964)『増訂補注 朝鮮語学史』刀江書院
- オング, W-J. (1991) 『声の文化と文字の文化』. 桜井直文·林正寛·糟谷啓介訳. 東京:藤原書店
- デリダ, ジャック(2001)『たった一つの, 私のものではない言葉——他者の単一言語使用』, 守中高明訳, 東京:岩波書店
- 金珍娥(2013)『談話論と文法論——日本語と韓国語を照らす』, 東京:くろしお出版
- 野間秀樹(2007)『形態音韻論からの接近』, 野間秀樹編著『韓国語教育論講座 第1巻』, 東京:くろしお出版
- 野間秀樹(2008)『言語存在論試考序説Ⅲ』, 野間秀樹編著『韓国語教育論講座 第4巻』, 東京:くろしお出版
- 野間秀樹(2010)『ハングルの誕生——音から文字を創る』, 東京:平凡社
- 野間秀樹(2014a)『日本語とハングル』, 東京:文藝春秋
- 野間秀樹(2014b)『韓国語をいかに学ぶか——日本語話者のために』, 東京:平凡社
- 野間秀樹(2014c)『知とハングルへの序章』, 野間秀樹編『韓国·朝鮮の知を読む』, 東京:クオン
- Ong, Walter J. (1982;2012) Orality and Literacy :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30th Anniversary ed. Abingdon; Routledge
- Saussure, Ferdinand de (1916;1972)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 Payot